

尹 탄핵안 가결에 국내증시 반등 기대감... 글로벌 경제 '변수'

탄핵안 가결 분위기 형성되자 투자심리 개선 돼 코스피 회복세 과거 탄핵정국 때와 유사 예상

반도체, 은행 등 추가반등 전망 中 경기부양책, FOMC 결과 집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내 증시도 반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거 탄핵 정국에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지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다만 글로벌 경제 흐름은 여전히 변수라는 의견이 나온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사태 직후 4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5.58% 떨어졌지만, 이후 회복세를 찾으면서 5.67% 상승했다. 지난 9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영향으로 2400선도 붕괴됐지만, 마지막 거래일 기준 2494.46에 마무리하면서 다시 2500선에 근접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스시스

된다. 과거 탄핵 정국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판단되는 시점부터 증시가 회복됐다. 시장에서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사태가 정점에 달하며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했으나, 탄핵 국면으로의 진입과 기업 사태 수습 과정이 가속화

되며 안정화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코스피는 2016년 탄핵 국면과 유사하게 정치적 불확실성 감소에 따른 반등을 기대한다"고 내다봤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는 탄핵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은 좋지 않았으나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후 5월 14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기 전까지 코

스피는 9.5% 하락했다. 반면, 2016~17년에는 대규모 쏠집효과가 이뤄질 정도로 여론이 탄핵을 원했다. 이 때문에 탄핵 청구일부터 선고까지 3.6% 올랐다. 게다가 2017년 코스피 연간 수익률은 22%로 높은 편이었다.

하반기부터 순매도세를 지속했던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업 사태 이후 '패닉 셀(공포 매도)' 현상을 보였던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복귀도 기대되고 있다. 기업사태 직후였던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국내 증시에서 개인은 2조 5264억원, 외국인은 9629억원을 순매도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 기간에 기관이 2조 8000억원 가량을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했다.

해당 기간 개인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은 삼성전자로 각각 4665억원, 5263억원씩 털었다. 하지만 기관의 순매수 1위 종목도 삼성전자였던 만큼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히려 4.7% 올랐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탄핵 가

결 이후 국내 증시의 추가적 반등 여력은 남아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오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유효할 시 국내 증시에서는 연간 낙폭과대 업종 중 2025년에도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도체 ▲은행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방산 등이다. 코스피가 연초 수준인 2600까지 회복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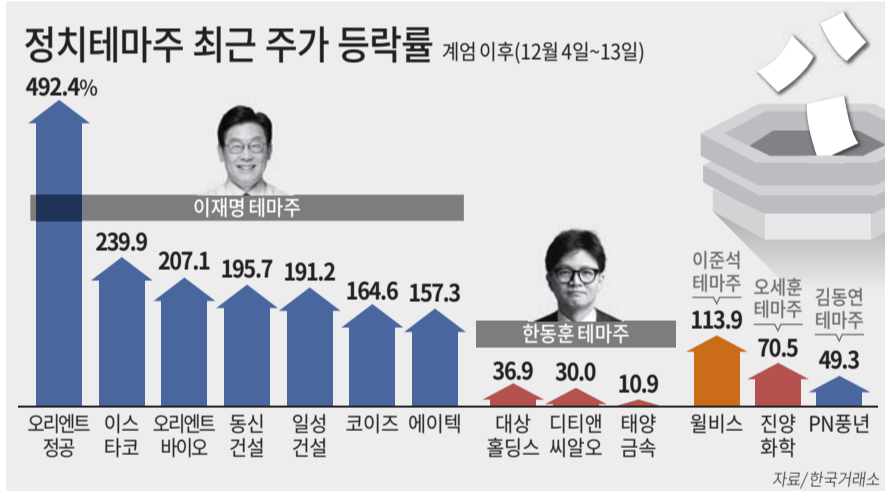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주가 영향은 주로 단기적이었고, 중장기적 주가의 방향성은 글로벌 경기 방향성이 좌우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 경기 부양책 세부 내용과 다음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짚었다. 오는 18일(현지 시간) 미국 중앙은행 연준은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이다. /신하는 기자 godhe@metroseoul.co.kr

'투기장' 된 정치테마주... "변동성에 투자 유의 필요"

李 관련주 '오리엔트정공' 492.40% ↑ 韓 관련주 '대상홀딩스' 36.89% ↑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성 높아 '주의'

경기 부진에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어느 때보다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내 증시에서 정치테마주만 급등락을 반복하는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정치테마주로 인식된 일부 종목은 실적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정권 교체 가능성을 반영하며 폭등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급등 현상이 단기적인 재료에 의존한 것으로, 재료 소멸 이후 급락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주로 분류되는 오리엔트정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언한 직후인 4일부터 13일까지 8거래일 동안 주가가 1131원에서 6700원으로



492.40% 상승하는 폭등장세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이스타코(239.94%), 오리엔트바이오(207.13%), 동신건설(195.69%), 일성건설(191.21%), 코이즈(164.63%) 에이텍(157.27%) 등 다른 관련주들도 급등했다.

오리엔트정공과 오리엔트바이오는 과거 이재명 대표가 오리엔트정공 계열

사인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알려지면서 관련주로 주목받았다. 이 대표는 해당 공장을 방문,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이스타코와 일성건설은 이재명 대표의 주택 정책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됐다.

동신건설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에

본사를 두고 있고, 에이텍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운영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CEO) 포럼의 운영위원을 맡았던 최대주주의 인연을 이유로 관련주로 편입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주들 역시 기업 사태 이후 상승세를 보였다.

대상홀딩스는 36.89%, 디티앤씨알오는 30%, 태양금속은 10.93%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상홀딩스는 배우 이정재와 한동훈 대표가 친구 사이로 알려지면서 한동훈 테마주로 분류됐다.

태양금속은 한우삼 대표가 한 대표와 같은 청구 한씨라는 점에서, 디티앤씨알오는 사외이사가 한 대표와 서울대 법대와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 동문이라는 이유로 테마주가 됐다.

양당 대표뿐만 아니라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정치인의 관련주도 투자자 관심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준석 테마주로 꼽히는 월비스(113.94%),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주 진양화학(70.48%), 김동연 경기도지사 테마주인 PN펀년(49.26%) 등이 기업 이후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면서도 대체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정치인과의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묶여 형성되는 정치테마주는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관련 테마주들이 단기간 주가가 2~3배 상승했다가 이내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정치테마주들이 이벤트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정치 불확실성 해소·완화 전까지 증시의 추세적 정상화 가능성은 제한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는 정치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공산이 큰 만큼 테마주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비상 계엄' 이용 불법리딩방 사기 기승

금감원 Q&A

제도권 금융회사, 앱 설치 요구 안 해

Q: 최근 성행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최근 비상 계엄을 이유로 금융감독원에서 자금출처를 조사한다고 하며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기의 형태로는, 불법업자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무료 주식강의, 급등주 추천 등을 게재

해 네이버 밴드로 유도합니다. 그 후 상장주식을 장외 대량매매로 싼 가격에 매입해 매일 수익이 난다며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합니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바랍잡이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투자 성공 사례 등을 보여주면서 주식거래 앱이 정상 작동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입니다. 그 후 자금을 대어 하여 초기 투자자금 없이 많은 수익을 얻은 것처럼 꾸밈니다.

이들은 수익금 출금을 신청할 때 '원금상환'을 요구합니다. 원금상환시 상환 방법이 잘못됐거나, 세금 등 납부를 빙자해 출금을 지연하거나 추가 납입을 요구하는 게 불법업자들의 일반적

인 수법입니다. 기억해야 할 부분은 '제도권 금융회사는 개인 메신저나 채팅방을 통해 거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불안정한 정치상황을 틈타 금융감독원이 자금출처 조사를 요구, 검증을 위한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말로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도 증가했습니다.

금감원은 계엄령 등을 이유로 투자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으니 자금출처 심사를 위해 입금을 요구하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치상황을 악용하여 불법업자가 정치테마주 투자를 권하거나, 금융당국의 자금세탁 조사 등을 빙자한 투자사기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삼성운용, 코리아밸류업 ETF 총보수 인하

업계 최저 수준인 0.008%로 인하고 기초지수 흐름 반영되도록 운용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코리아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의 총보수를 업계 최저 수준인 0.008%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KODEX 코리아밸류업 ETF는 수익성, 주주환원, 시장평가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코리아밸류업 지수를 기초지수로 최대한 추종하는 패시브 상품이다.

이 ETF는 패시브 스타일에 맞게 기

초지수 흐름을 충실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상장 후 코리아밸류업 지수가 -1.13%를 기록한 반면 이보다 0.03%포인트(p) 양호한 -1.1%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장 상무는 "KODEX 코리아밸류업 ETF는 정통 패시브 상품에 맞게 기초지수와 연동된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더불어 풍부한 유동성을 보유한 만큼 이번에 업계 최저 수준인 0.008%로 총보수를 인하한 효과가 코리아밸류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